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마귀의 정체

(요 8:41-50)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에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의 지도자들은 매우 거친 말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들, 곧 유대인들은 약속의 자녀요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8:44)라고 말씀하십니다.

1.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요 8:44)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에 의해 항상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요 8:59).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호인이 아니라 불의를 향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마귀의 자녀라고 소리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 마귀의 정체

(1) 마귀와 사단의 차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는 사단으로, 어느 곳에는 마귀로, 어느 곳에는 악마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들의 고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단과 마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모든 곳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 한 번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졸개들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2) 사단의 정체

사단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또는 벨리알, 악귀의 머리, 마귀의 대장, 악의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뱀, 옛 뱀, 큰 용, 원수, 악한 자, 대적자, 고소자, 시험자,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세상 신,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표현됩니다.

① 사단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공상이나 상상이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②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고후 2:11). 사단의 특징은 속이는 것이며 위선적이며 중상과 모략을 일삼습니다.

③ 사단은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④ 사단은 타락한 자입니다. 사단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 아벨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게 하였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⑥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⑦ 사단은 완전하며 아름다우며 지혜가 총만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악을 행하는 지혜입니다.

⑧ 사단은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과거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품성과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⑨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마귀들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고전 10:13).

사단은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약속을 하고 인간들이 납득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합니다.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럽게도 생긴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며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매력 있고 당장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영광을 누릴 것 같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도 있고 인간적인 미래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지혜는 영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사랑을 말하나 종국은 미움이요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따라 평안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약속을 이루는 길, 영광이 넘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신청 접수 중 2월 10일(목)까지,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 김승록 집사)는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 신학생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대학생, 신학생,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극빈자, 장애인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

회 봉사에 모범적인 자를 선발 조건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교구 또는 교회학교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10일(목)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7일 오후 찬양예배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소준 백승규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2022 성경암송대회

2022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2(토) 일반부 본선
11.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주차 안내

교회의 정상화 및 방역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예배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차 원칙

- 장기(종일)주차 : 지상 1층, 지하 3층
(대상 : 직원, 교역자, 종일 봉사자)
- 예배 시 주차(각 예배시간) : 지하 1, 2층
(찬양예배 제외)

* 지하 1, 2층 2열 주차 앞 열 차량은 예배 후 반드시 출차(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2. 주차 방법

- ① 안쪽부터 주차하기
- ② 건물 기둥 중심으로 백미러가 닿을 듯 주차하기.
- ③ 주차라인 중앙에 주차하기



만민에게 전도- 케냐 선교 보고

사진으로 전하는 케냐 선교 보고



김낙형 선교사 · 오정녀 선교사가 케냐 소녀들에게 전달한 생활용품과 생리용품들

이번 주 케냐와 인도 선교 보고로 지난 21년 4/4분기 선교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건강과 선교 사역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들은 모든 현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인도 선교 보고

모든 교회의 예배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아가페교회(예배 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손달의 목사님과 서울교회와 당회, 선교위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관심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치그라푸라 마을 아가페 센터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어갑니다.

긴 시간 동안 고국에 머물렀다가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선교지로 향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마음이 파송식을 하고 처음으로 가던 13년 전 그때의 마음과도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상황은 올 초 심각한 상황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가나할리교회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니모처나교회, 단네교회, 그레이스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곳 아가페교회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아가페학교는 교육청에서 개학 허락이 없어 정상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가페 선교관에서 학교 근처 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아가페학교는 다음 달부터 개학이 정식 허락이 되어 정상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코로나의 확진자 수는 현저히 낮아 워드 코로나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모임이나 식당 등에서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가페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2층을 증축 중에 있으며 그동안 건축 업자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교회와 학교 1층 건축) 저희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건축비를 미리 지급하지 못하였는데도(인도는 건축 비용은 선불임)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가페학교 2층 증축 건축비를 후원해 주신 서울교회와 당회, 선교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소멸되어 인도와 한국,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회복과 치유, 정상화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아가페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2. 아가페유치원, 아가페학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3. 인도 동역자(목회자)를 위해서!
4. 치그라푸라마을, K,G 꼬페마을, 페담팔리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5. 나가나할리교회, 니모처교회, 단네교회, 그레이스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6. 아가페학교 2층 증축 공사 완공을 위해서!
7. 인도의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8. 한국과 인도, 전 세계의 COVID-19가 종식 되어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9. 서울교회의 예배 회복과 치유, 부흥 성장을 위해서!
10. 이상식, 김정옥 선교사의 사명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인도에서
이상식 선교사 · 김정옥 선교사



아가페학교 수업(위)과 아가페학교 수업 후(아래)

아가페학교 2층 증축 공사 사진(위, 아래)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게 됐지만 전에는 야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가 478장을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언제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해변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중 8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는 매년 수백만 톤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바다에 버려진 밧줄, 그물, 비닐봉지들은 '얽힘(entanglement)'과 '삼킴(ingestion)'을 통해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은 강한 자외선과 파도에 마모되고 쪼개지면서 점점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됩니다. 바다 미세 플라스틱을 '제2의 미세먼지'라고도 말하며 '침묵의 살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 운동가들은 '플라스틱의 역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레스트산(8848m) 정상 주변, 그린란드, 남극 대륙 등 극지방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플라스틱 비'가 서울에 내리는 셈입니다.(중앙일보 2022. 1. 31) 이전 지구촌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이제 자연환경 파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대의

대 소아과 및 환경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미국 뉴욕주 신생아 태변과 1세 유아 태변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중앙일보 2021.9.25) 인간의 탐욕을 가중시키는 발전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었고,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기보다는 일회용 제품 생산, 사용량을 줄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대체해 봅시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을, 샴푸와 린스를 샴푸바와 린스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주방 세제 대신 설거지바로, 설거지용 스펀지나 뜨개질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고 1회용 빨대 대신 대화용 개인 빨대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점차 소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어둠의 조선에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들에게 교육, 의료, 여성과 아동의 인권 등을 알리고 교육해 계몽했듯이 이제 21세기 환경문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카롭고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예민해야 하며 제품 구매에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이웃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순례자는 2022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참여 방법**

1. 내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에 관한 글이나 인증 샷
2.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운동), 비치코밍(beachcombing 해변 쓰레기줍기) 등 MZ세대의 친환경운동 인증 샷

*** 참여 기간**

2022년 4월 22일 (지구의 날)까지

*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 보내는 곳**

순례자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월 4일(금)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고문단을 소집하였다.

■ 교수 임용 : 양정호 목사(협동목사, 신앙강좌부·영어성경부 담당) 장신대 교수로 임용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7일	월	출 34-36		신 1-7	
2월8일	화	출 37-39		신 8-14	
2월9일	수	출 40		신 15-22	
2월10일	목	레 1:1-6:7		신 23-29	
2월11일	금	레 6:8-8:36		신 30-34	
2월12일	토	레 9-11		수 1-8	
2월13일	주일	레 12:1-14:32		수 9-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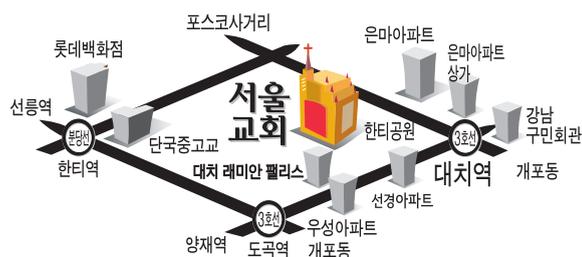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람에게는 선한 이웃이 되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소서.
2. 국내외 선교지, 비전2030 군선교지,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를 보살펴 주소서.
3. 대통령 선거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문화 성숙의 계기로 선포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